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1 주제발표(1인) 2

2 지정토론(4인) 2

3 청중토론(참여자 전체) 5

4 마무리 말씀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통해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령신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함과 동시에 기반 배후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20. 6. 30.(화), 14:00~16:00 /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
- 참　　석 : 6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 영우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령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령신항 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보령신항의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령신항을 조기착공하고 기반 배후시설을 혁신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 보령항로는 누적된 토사로 대형선박 항해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한 출력의 스크류로 인한 갯벌확산으로 어족자원의 피해 및 조업에 어려움을 주는 만큼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통과를 촉구함.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보령신항은 새로운 항만 트렌드를 접목시켜 뉴 트렌드 항만으로 구상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및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물선사 유치 등 배후권역을 조성할 계획임.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보령신항이 그동안 건설되지 못한 이유는 신항 입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됨.

❍ 보령신항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와 과제는

- 글로벌 물류의 운송 및 산업의 패러다임 이동에 대비하고
-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 및 유라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 도민의 사랑을 받는 마리나 항만(City Port)을 건설해야 함.

❍ 아울러, 보령신항을 기반으로 연근해 항로를 개발하고 보령신항의 배후지를 혁신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함.

❍ 보령신항의 조기착공과 기반 배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협력하여 “충남보령신항만공사” 를 설립하여 선제적 · 주도적으로 현안에 대응해야 할 것임.

2 지정토론(4인)

①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로 해양레저관광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이 넘치는 연안지역’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보령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 항만, 어촌, 해안 등 해양레저스포츠인들과 관광객들의 첫눈에 들어오는 지역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함.

- 지역 어촌계 등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과 연계하여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함.

-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 종목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임.

- 해양레저관광은 시설만 구축되었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해양레저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② 양석우 (보령시 발전협의회 회장)

❍ 보령신항은 보령미래산업과 관광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령신항과 배후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해양관광 및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무공해, 친환경 발전단지 및 LNG 친환경 소형 선박 교체를 위한 조선소시설 유치 등.

❍ 보령항로는 누적된 토사로 대형 선박 등의 항해에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한 출력으로 출항할 경우 스크류에 의한 갯벌확산이 일어나 주변 어족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는 충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상품과 77국도 연결이후 크루즈 접안 등 배후상품의 개발에도 시너지를 낼 것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③ 한준섭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국장)

❍ 보령신항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1998년 설계까지 마치고도 IMF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6년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시 준설토투기장(항만부지)을 반영하여 2018년 설계를 완료하였음.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속히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 보령신항이 2019년 8. 2.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의해 “미래 대비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항만부지, 관리부두를 조성하고 항만수요(물동량)을 확보하여 이후 보령신항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④ 한상범 (보령시 해양정책과 과장)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보령신항을 스마트화,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새로운 항만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뉴 트렌드 항만을 구상해야 함.

❍ 선석개발의 타당성과 논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항만수요 확보(산단 및 기업 · 대규모 화물선사 유치), 배후단지 및 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배후 교통망 개발 등을 통해 5년 후에 있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중 · 장기 프로젝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보령시만의 물동량으로는 항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홍성, 청양, 부여, 서천 등 배후권역의 항만 물동량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및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 보령LNG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냉매를 이용한 냉동 · 냉장 물류단지 조성, 대규모 화물선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

3 청중토론

❍ 보령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나이지기 위해서는 보령신항이 필히 건설되어야 할

것인데, 수년전 보령시 발전협의회가 신항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탄력을 받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보령신항을 무역+레저 복합항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동량이 국내 9위 또는 10위인 상황에서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레저를 위한 마리나 항이 여기저기 분산되면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령신항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서산-대산항, 보령-보령신항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산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기반시설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의견 :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 배후도로와 보령신항을 잇는 도로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지방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보령신항이 다기능 복합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 보령 LNG터미널을 이용하여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내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관광시설을 개발할 필요 있음.

[의견 : 유성일, 전 보령시 도로과장]

❍ 환경미화, 국화꽃 심기 등을 통해 찾고 싶은 보령거리를 조성해야 함.

❍ 현재 보령의 교통상황을 보면 밤 10시 이후에 대중교통이 끊기는 관계로 이동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밤 10시 이후 이동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령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의견 : 신 형, 보령 마을가꾸기 협의회 회장]

❍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 오천항, 천북항 등이 협소하고 혼잡하여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속에서 출항하는데, 보령신항 건설시 낚싯배 전용부두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의견 : 송재균, 충남어업인 낚시연합회 회장]

4 마무리 말씀

❍ 보령신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용기있게 추진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령시민과 충청남도가 협심하여 보령신항을 건설하도록 할 것임.

❍ 보령은 관광레저, 서천은 바이오관광, 태안은 치유관광을 캐치플레이로 홍보하고 있는 국가적 시책이니 만큼 보령신항이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보령신항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할 것임.

[마무리발언 : 이영우,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보령신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항 입지의 필요성을 넘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증명할 논리를 개발해야 함.

❍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시급하므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나서 빠른 통과를 촉구해야 함.

❍ 보령신항의 조기착공과 기반배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협력하여 “충남보령신항만공사”의 설립이 필요함.

<결 과>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임.

❍ 글로벌 물류 운송 방식의 변화와 산업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 및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

❍ 보령신항이 “미래 대비 항만”으로 지정되었음으로 향후 5년 동안 항만부지, 관리부두를 조성하고 항만수요 확보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할 것임.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보령시 해양정책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일시 2020. 6. 30(화) 14:00
장소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
주최 충청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일시 2020. 6. 30(화) 14:00
장소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
주최 충청남도의회
토론 한준섭
토론 김경태
발제 박창호
좌장 이영우
토론 양석우
토론 한상범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19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16건	
1	news1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견인한다	'20.07.01
2	내외일보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3	매일일보	충남도의회 '보령 신항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4	백제NEWS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5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6	세종nTV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7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8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9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10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11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12	MBS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
13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
14	코리아플러스	이영우 의원 요청...보령신항 '러시아 대륙 잇는 새로운 물류망'	〃
15	금강일보	"보령신항 배후 단지 교통망 개발, 해양문화 공간 조성해야"	〃

16	NEWSIS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조기건설 방안 모색	〃
지면보도		**3건**	
17	투데이충남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도모	'20.07.01. 종합02면
18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끝다	'20.07.01. 정치02면
19	신아일보	이영우 충남도의원 "보령신항, 유라시아 대륙 잇는 새로운 물류망 구축해야"	'20.07.02. 지역14면

□ 지면보도(3건)

2020년 07월 01일 (수)
투데이충남 종합 02면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도모

이영우 의원 요청,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30일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재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보령신항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1997년 신항만 중 하나로 지정된 보령신항은 설계까지 마쳤지만 IMF 사태로 시행되지 못했고 지난 2018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우 의원은 "2019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이 '미래 대비 항만'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5년간 항만부지와 관리부두 조성, 물동량 확보 등을 준비하고 이후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되면 충남도와 보령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물류와 신산업 체계로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령신항이 그동안 항만수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배후단지 교통망 개발, 해양문화 공간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창호 세원대 교수는 "보령신항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입지 필요성은 인정받았으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배후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 최초 무역과 레저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령시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양석우 보령시발전협의회장은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타통과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한준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보령신항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한상범 보령시 해양정책과장은 보령신항 항만수요 확보 방안과 재구상을 주제로 제언했다. 내포/석지후 기자

116 X 201 mm

2020년 07월 01일 (수)

대전투데이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보령신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이영우 의원 요청…보령신항 조기 · 성공 건설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30일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우 의원(보령2 ·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재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보령신항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1997년 신항만 중 하나로 지정된 보령신항은 설계까지 마쳤지만 IMF 사태로 시행되지 못했고 지난 2018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우 의원은 "2019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이 '미래 대비 항만'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5년간 항만부지와 관리부두 조성, 물동량 확보 등을 준비하고 이후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되면 충남도와 보령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물류와 신산업 체계로 전환에 대비해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령신항이 그동안 항만수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배후 단지 교통망 개발, 해양문화 공간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령시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양석우 보령시발전협의회장은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타통과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내포=김정환기자

149 X 92 mm

2020년 07월 02일 (목)

신아일보

지역 14면

이영우 충남도의원 "보령신항, 유라시아 대륙 잇는 새로운 물류망 구축해야"

이영우 충남도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보령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보령신항이 그동안 항만수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배후 단지 교통망 개발, 해양문화 공간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65 X 35 mm